

광주의 풍경과 역사, 광주 사람들을 노래하다

김원중 데뷔 30년 음반 '걸어온 길, 걸어진 길' 발매

어쩌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0년 동안 같은 일을 해와 지칠 법도 한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장 '그 일'이 좋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니 말이다. 아티스트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1985년 '바위섬'으로 데뷔
자작곡 12곡 수록
7월 개 광주서 기념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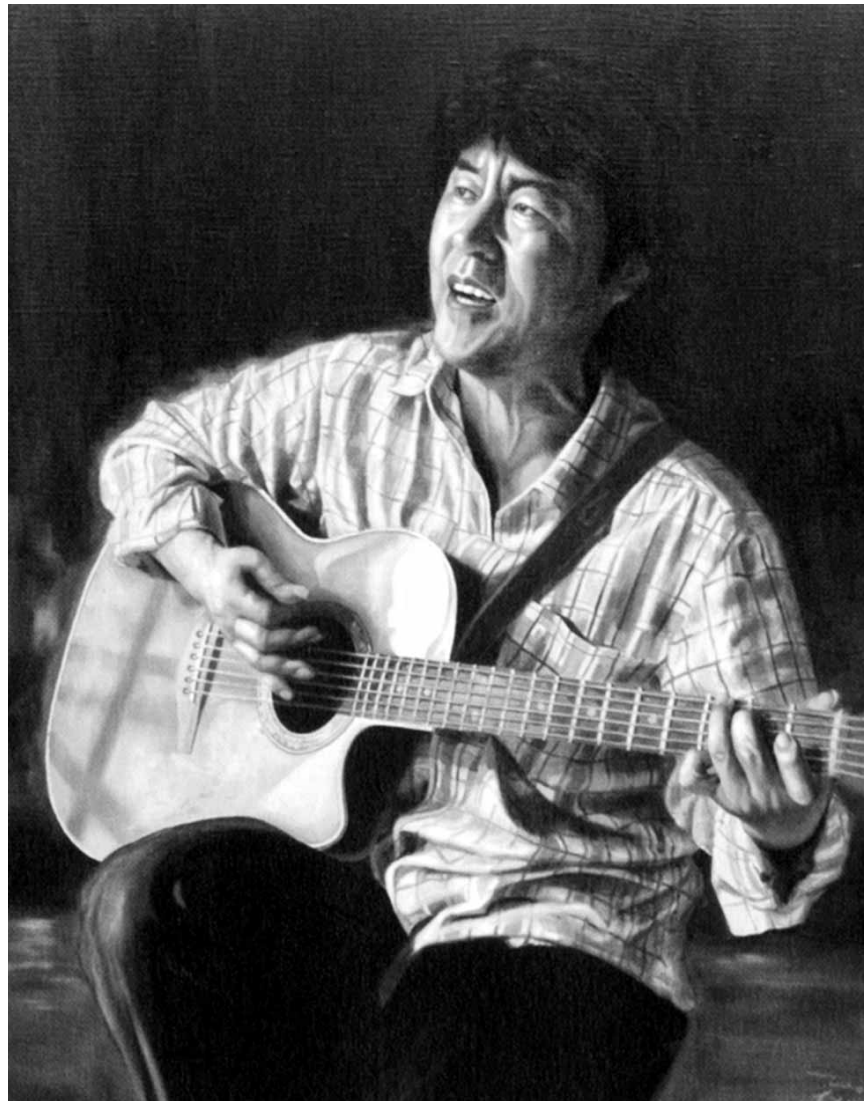
년전 유물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비단과 키가 큰 여인의 유골.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로 추정되는 현악기를 소재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었다. 곡은 피리와 가야금을 엮은 국악풍으로 탄생했다.

'사랑하는 길이 보여'는 그가 자주 드나드는 커피숍 '좋은 수' 사장과의 인연이 빚어낸 곡이다. 가게에 언제나 놓여 있는 나무 조각에 쓰인 글귀는 언제나 위로가 됐고, 그 글귀를 제목 삼아 노래를 만들었다.

'광주전'은 증암천, 곡력강, 광주전, 광주공항 다리에서 황룡강까지 수차려 걸은 후 만든 노래며 '시베리아 나타샤'는 그의 꿈이 담긴 노래다. 광주에서 출발해 서울을 거쳐 휴전선을 넘어 평양을 찍고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시베리아를 지나 모스크바, 베를린, 암스테르담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꿈꾸는 그의 희망이 담겨 있다.

'내 나이 48'은 어느날 갑자기 책이 보이지 않게 된 '순간'을 기억하며 부른 노래로 비슷한 시간을 건너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된다.

1990년대부터 시노래 동인 '나팔꽃'에서 활동했던 그는 이번 음반에 시노래 4곡을 실었다. 중학교 시절 어느 잡지에서 읽은 김광균의 '설야'는 40여년 세월이



가수 김원중이 데뷔 30주년을 기념해 발매한 6집에는 '내 나이 48' 등 12곡이 실려 있다. 그가 마흔 여덟이 되던 해 친구인 서기문 작가가 그려준 그림.

지나 노래로 만들어졌다. 형님처럼 따르는 시인 김용택의 '우회등선', 김선우 시인의 '내 몸속에 잠든 이 누구신가?', 도종환의 '담쟁이'에 멜로디를 붙였다.

음원시대인 요즘, 10여곡이 넘는 곡을 실은 정규앨범을 발매하는 건 힘든 일이다. 그와 항상 함께하는 음악 친구들과 초창기부터 마음을 나눴던 팬클럽 '나타샤' 회원들 등 지인들이 음반 제작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류형선·이법선씨가 편곡 작업을 맡았고, 앨범 사진과 디자인은 리일 전 작가 최명진 목사가 함께했다.

"솔직히 음악에 인생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적은 없었어요. 유행처럼 즐기는 것이었고, 언제라도 다른 일로 돌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년 전부터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항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남은 인생도 노래하며 살아야죠."

6월까지 방송활동 등을 통해 노래를 알리는 작업을 진행한 후 7월 개 광주와 서울에서 음반 발매 기념 콘서트를 열 계획이다. 김씨가 중심이 돼 진행하고 있는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도 5월부터 광주 시작공원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공연장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한다.

음반은 김원중 홈페이지(www.kim-wonjoong.com)와 인터넷 음반숍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도 정자문화 주역 김성원의 한시 297수 최초 완역 박사논문 나왔다

전남대 장안영 문학박사

"훈훈한 바람이 끝없이 불어오니 높은 정자 올라 봄놀이 하네
봄날에 핀 꽃에 번뇌가 일어서
성성한 백발도 모두 잊어버렸네
물빛은 먼 끝까지 이어지고
비취빛 남기는 빈 뜰을 적시네
꽃길을 쓸 일이 뭐 있으리
사립문 뒤편에도 닫혀 있는데"

16세기의 대표적인 호남 문인 서하당(棲霞堂) 김성원(金成遠·1525~1597)이 그와 교류했던 고봉 기대승과 제봉 고경명에게 화답한 사시영(四時詠, 4계절을 읊은 시) 중 '봄'이다.

전남도가 전남 문예자원에 대한 가치 재발견과 부흥을 위해 '남도 문예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착수한 가운데, 남도 정자문화의 주역인 김성원이 남긴 한시를 최초로 완역한 박사논문이 발표됐다.

장안영 전남 광주일보 정치부장이 논문 '역주 서하당유고(棲霞堂遺稿)'로 지난 2월 전남대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성원은 1525년(중종 20년) 광주 충효리(광주시 북구 충효동)에서 태어나 담양군 창평면 성산(聖山)에서 서하당과 식영정을 짓고 이이, 정철, 기대승 등 당대의 석학은 물론 함께 성산사선(四仙)으로 불리는 임억령, 정철, 고경명 등과 교류하며 많은 한시를 남겼다.

특히 그는 임억령과 117수, 정철과 102수, 고경명과 99수의 시를 주고 받은 등 성산사선의 중심 인물이었다.

장 박사는 "서하당과 식영정의 주인으로 김성원이 조선문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문집은 완역되지 않았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장 박사는 서하당유고의 233제 446수 중 김성원이 지은 한시 146제 230수와 명암집, 미암집 등에 실려있는 김성원 관련 시 31제 67수 등을 찾아내 모두 번역했다. 주제별로 분류하면 누정이나 명승지에서 일어나는 즉흥적 감상이나 자연과 물아일체가 돼 세상을 관조하는 시선을 드러낸 작품이 70제 96수, 송별시 14제 24수, 주변 인물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도시 12제 17수 등이다.

장 박사는 "문집 완역은 일차적으로 그의 문학적 특성과 삶을 살필 수 있는 기초자료"라며 "식영정을 중심으로 한 문인들의 인적 교류관계를 파악하고, 그들의 작품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호남시단 및 한국시단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서하당은 지난 1985년 재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벽당, 소재원, 식영정과 함께 남도 정자문화를 잇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자원이다.

한편 김성원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북현감을 역임하면서 군량과 의병을 모으는데 큰 공을 세웠으나 1596년 조카 김덕령이 무고로 옥사하자 은둔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어머니를 잃고 피난하던 중 화산에서 왜병을 만나자 부인과 함께 몸으로 어머니를 보호하다 살해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평화방송 치유와 힐링의 인문학콘서트

18일 '새 박사' 윤무부 교수

11월까지 매달 셋째주 금요일

광주평화방송(광주시 서구 치평동)이 이달부터 '2016 치유와 힐링의 인문학콘서트'를 시작한다. 인문학콘서트는 오는 11월까지 매달 셋째주 금요일 오후 3시 방송국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오는 18일 진행되는 첫번째 강의에는 '새 박사' 윤무부(사진) 전 경희대 교수 강사로 나선다. 윤 교수는 '새와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지역민들을 만난다.

오는 6월에는 유안진 시인, 7월 추왕석 광주 서구시니어클럽 관장, 9월 농업법인 미실리대표 이동현 박사, 10월 최



현순 서강대교수, 11월 김성한 전 야구감독 등이 차례로 강사로 나선다.

매 강연은 특강에 이어 강사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토크콘서트도 마련돼 인문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 참석할 수 있다. 인문학 포럼 회원으로 가입(전화·현장 접수)하면 사전 안내문 발송과 지정석 배정, 방송출연 기회 제공, 방송국 시설 사용시 할인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062-231-770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문화부, 저작권 설명회·법률 상담 서비스

15·16·18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15일 전남도립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총)는 광주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과 함께 저작권 설명회를 개최하고 저작권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 지역 설명회는 15일과 16일, 8일 3일간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전남 지역은 15일 무안 전남도립도서관에서

진행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는 불공정 계약이나 저작권 침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피해 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자의 권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작권에 대한 기초 설명과 관련 상담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개별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다. 특히 광주·전남문화예술재단 지역협력형사업 선정 예술인단체 뿐 아니라 방문객도 상담부스에서 저작권 관련 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문의 055-792-02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